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ental Perception of Children's Competencies

이지민** · 나종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부

Ji-Min Lee** · Jong-Hay Rha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correlations of children's competencies perceived by fathers and mother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of children's competencies in relations to characters of the children and that of the parents. The subjects were 225 pairs of father-mother of 7 and of 12 year old children in Daeje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Children's competencies perceived by fathers and mothe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2) The gender of child affected much on father-perceived esthetic and musical competencies, and on mother-perceived responsible, intellectual, esthetic, and musical competencies. Child's age also had a great effect on father- and mother-perceived esthetic competencies of child.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competencies in relations to characters of parents except in father-perceived responsible competence by fathers' age and in intellectual competencies by income, and in mother-perceived social competencies by mothers' job.

Key Words : children's competencies, parental perception, gender, age

I. 서론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동기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측면의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인간의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박상인, 이병림, 1981; Sophian, 1997). Piaget는 아동기가 조작적 능력이 습득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졌으며, Erikson 또한 이 시기 동안 아동의 잠재 능력이 개발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의 능력은 영원히 잠재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하여 아동기 동안의 능력 개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 아동

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 속의 전반적인 능력을 '생활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동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아동의 생활능력(competence)은 연구의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측정되어져 왔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초점을 둔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White와 Watts(1973)는 아동의 생활능력을 사회적 능력과 비사회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대인 상호간에 일어나는 행동에 초점을 둔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방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적당한 상황에 적당한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활능력의 정의에 포함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이병림, 1987; 이종강, 2004; O'malley, 1977). 그 외에도 광범위한 인성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능력을 분리된 요인의 결과로 보는 요인적 접근방법에서 Gesten(1976)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학생으로서의 우수성, 기세동등함, 또래와의 사회성,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성, 그리고 좌절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3-C00143)

** Corresponding author: Ji-Min Lee
Tel: 042) 629-7437
E-mail: LBB1211@empal.com

대한 인내심 등으로 분류하였다. 동기적 접근방법에서는 생활능력을 생물학적 의미로 사용하여 이를 사회와 문화를 초월한 유기체 고유의 동기로 보았다.

아동의 생활능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김윤심, 1995; 김정아, 1990; 박인전, 1998; 이경희, 1993; 최정미, 2002; Cohen-Kettenis et al., 2003; McDowell et al., 2003)이나 인지적 능력(구순완, 1991; 김현순, 1993; 박성희, 1987; Driessent, 2003)등의 하위 변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활능력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고려할 때,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하위능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러 측면의 능력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Epkins, 1998; Lee et al., 2003).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병림(1987)은 아동발달이론과 IPACI [FormA](Iowa Parent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encies Instrument[Form A])를 바탕으로 아동의 생활능력을 신체 및 운동능력, 지적 능력, 책임수행능력,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 그리고 인성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한 도구를 개발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각을 평가하였다. 최근 몇몇 연구들(노현미, 1998; 박세정, 1999)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하나의 하위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생활능력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등의 아동 변인과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등의 부모 변인으로 구분된다(이병림, 1987; Bondy et al., 1982; Garner et al., 1994). Bondy 등(1982)은 생활능력 전반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달라진다고 보고했다(박상인, 이병림, 1981; 구순완, 1991; 임정하, 정옥분, 1997). Grawe(1977, 이병림, 1987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주의집중을 잘하고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반면, 여아는 더 차분하고 내향적이며 말이 많은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1981)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은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예술적 능력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적·신체적 영역에서는 남아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경희(1993)의 연구나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김선미, 정옥분(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노현미(1998)의 연구에서는 예술적 능력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하위 영역에서는 성별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 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역할수용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성희(1985)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생활능력에 대한 연구들과는 달리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박상인, 이병림, 1987; Lee et al., 2003). Ali(197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생활능력과 지적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Lee 외(200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성에 관한 문항과 예술적 능력, 신체 및 운동능력,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인성발달과 예술적 능력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능력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한다(박상인, 이병림, 1981; 박세정 외, 2001; Garner et al., 1994; Park, 1981). 박세정(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지적 능력, 책임수행 능력, 예술적 능력, 인성,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이 아동의 지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지각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지각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현미, 1998; 박상인, 이병림, 1981).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능력 각 하위 영역과 전반적인 생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직업 유형과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무직이나 노무직/생산적인 경우 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현미, 1998; 박세정, 1999). 어머니의 직업과 아동의 생활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데 박세정(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반면, 노현미(1998)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보다 유아의 신체 및 운동 능력과 예술적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 또한 아동의 생활능력을 지각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현미, 1998; 박세정, 1999). 이와 유사하게 김정아(1990)는 가족의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구순완(1991)은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의 지적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지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이혜영, 1985; 박법실, 1987; Bakemam & Brown, 1980; McDonald & Parke, 1984). 그러나 최근 들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동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평가가 어머니의 평가와 일치하는지 어떤지는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에서는 대체로 부모의 지각이 일치하지만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평가를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버지와 일치 정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아동의 생활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하여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 중심의 조기교육 열풍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의 능력과 개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여러 학원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교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과 재능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심리적, 환경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생활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아동 변인(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모 변인(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개영역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

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생활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아동 변인(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3. 부모 변인(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7세와 12세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225쌍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 아동은 남아가 38.2%(86명), 여아가 58.7%(132명)로 여아가 좀 더 많았으며 아동의 연령은 7세가 48%(108명), 12세가 52%(117명)로 비슷하였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교 졸업(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5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18.7%)과 전문대졸/대학중퇴(17.8%)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28.9%)이 가장 많았고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기타의 직업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전문직의 비율이 관리직이나 사무직, 생산직, 기타의 직업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46.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직(29.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아동생활능력

아동의 생활능력은 이병림(1987)이 사용한 72문항의 아동생활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을 각각 요인분석하여 공유치(communality)가 .4이하인 10문항(1, 3, 8, 25, 43, 36, 62, 66, 68, 70)을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섯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아동의 성별	남	86 (39.5)
	여	132 (60.5)
아동의 연령	7세	108 (48.0)
	12세	117 (52.0)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 (1.9)
	고졸	85 (40.5)
	전문대졸/대학중퇴	29 (13.8)
	대졸 대학원졸	71 (33.8) 21 (10.0)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7 (3.3)
	고졸	117 (56.0)
	전문대졸/대학중퇴	40 (19.2)
	대졸 대학원졸	42 (20.1) 3 (1.4)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14 (6.8)
	관리직	39 (18.9)
	사무직	24 (11.6)
	판매 서비스직	65 (31.6)
	생산직	30 (14.6)
	무직	1 (0.5)
	기타	33 (16.0)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15 (7.1)
	관리직	1 (0.5)
	사무직	9 (4.2)
	판매 서비스직	67 (31.6)
	생산직	2 (1.0)
	전업주부	104 (49.0)
	기타	14 (6.6)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의 응답은 한 문항(40번)을 제외하고 똑같이 분류되었다. 다르게 분류된 40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61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요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아동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지각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아동 변인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표 2〉 각 요인의 문항수와 신뢰도

요인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	어머니
책임수행 능력	22	.94	.95
사회적 능력	15	.92	.92
지적 능력	8	.88	.87
신체운동 능력	6	.84	.85
미술적 능력	5	.85	.86
음악적 능력	5	.79	.81

〈표 3〉 아동생활능력 하위 요인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아버지		어머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책임수행 능력	2.18	.51	2.19	.57
사회적 능력	2.03	.55	2.04	.58
지적 능력	2.14	.60	2.20	.59
신체운동 능력	2.39	.67	2.41	.70
미술적 능력	2.18	.74	2.29	.80
음악적 능력	2.29	.65	2.22	.68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변인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생활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생활능력 하위영역들은 서로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영역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은 중간 정도 이상의 상관($r=.586 \sim r=.669$, $p<.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각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의 지적 능력은 책임수행 능력과 사회적 능력과 다소 높은 상관($r=.624 \sim r=.748$,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생활능력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2	.626**	1.00									
3	.748**	.741**	1.00								
4	.453**	.545**	.528**	1.00							
5	.397**	.348**	.500**	.287**	1.00						
6	.521**	.545**	.567**	.335**	.410**	1.00					
7	.626**	.328**	.479**	.320**	.177**	.340**	1.00				
8	.386**	.646**	.468**	.416**	.079	.327**	.590**	1.00			
9	.453**	.417**	.586**	.327**	.294**	.370**	.704**	.624**	1.00		
10	.270**	.318**	.289**	.669**	.117	.118	.506**	.559**	.499**	1.00	
11	.223**	.129	.276**	.175*	.602**	.252**	.371**	.179**	.515**	.298**	1.00
12	.334**	.420**	.433**	.246**	.226**	.642**	.508**	.540**	.594**	.344**	.404**

*p<.05 **p<.01 ***p<.001

1: F책임수행 능력 2: F사회적 능력 3: F지적 능력 4: F신체운동 능력 5: F미술적 능력 6: F음악적 능력 7: M책임수행능력 8: M사회적 능력 9: M지적 능력 10: M신체운동능력 11: M미술적 능력 12: M음악적 능력 (F-아버지 지각, M-어머니 지각)

2. 아동 변인에 따른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미술적 능력(F=13.68)과 음악적 능력(F=11.23)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버지는 여아보다 남아의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책임수행 능력(F=4.44, p<.05)과 미술적 능력(F=10.58, p<.001)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7세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이 12세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미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7세 아동보다 12세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에 있어 아동의 성별과 연령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 지각

변수	아버지		어머니		
	MS	F	MS	F	
아동 성별	책임수행 능력	.40	1.57	1.95	6.34*
	사회적 능력	.00	.00	.07	.20
	지적 능력	.36	.99	3.07	8.87**
	신체운동 능력	.09	.20	.02	.04
	미술적 능력	7.07	13.68***	16.37	29.17***
	음악적 능력	4.41	11.23***	8.44	20.39***
아동 연령	책임수행 능력	1.12	4.44*	.59	1.88
	사회적 능력	.39	1.25	.03	.09
	지적 능력	.07	.19	.01	.03
	신체운동 능력	.43	.98	.48	.96
	미술적 능력	5.47	10.58***	5.90	10.51***
	음악적 능력	.56	1.42	.48	1.17
성별 X 연령	책임수행 능력	.28	1.11	.27	.84
	사회적 능력	.18	.57	.04	.11
	지적 능력	.62	1.73	.19	.55
	신체운동 능력	.03	.06	.04	.08
	미술적 능력	.06	.11	.72	1.27
	음악적 능력	.43	1.08	.38	.92

*p<.05 **p<.01 ***p<.001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책임수행 능력(F=6.34, p<.05), 지적 능력(F=8.87, p<.01), 미술적 능력(F=29.17, p<.001), 그리고 음악적 능력(F=20.39,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미술적 능력(F=10.51, p<.001)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아버지의 지각과 유사하게, 어머니는 여아보다 남아의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수행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도 여아보다 남아를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아버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책임수행 능력		미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M	SD	M	SD	M	SD	
아동 성별	남	2.27	.50	2.36	.72	2.50	.66
	여	2.13	.51	2.07	.74	2.16	.61
아동 연령	7세	2.27	.51	2.06	.73	2.39	.67
	12세	2.11	.50	2.30	.75	2.21	.62

〈표 7〉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책임수행 능력		지적 능력		미술적 능력		음악적 능력	
		M	SD	M	SD	M	SD	M	SD
아동 성별	남	2.33	.54	2.35	.60	2.60	.72	2.49	.70
	여	2.10	.57	2.10	.58	2.11	.80	2.04	.60
아동 연령	7세	2.27	.57	2.22	.60	2.19	.80	2.32	.67
	12세	2.12	.56	2.18	.60	2.41	.80	2.12	.67

〈표 7〉. 아동의 연령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지각과 유사하게,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미술적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지각했다. 어머니의 지각에서도 아동의 성별과 연령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 변인에 따른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그리고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연령($F=3.01, p<.05$), 어머니의 직업 유무($F=4.05, p<.05$), 그리고 월 평균 수입($F=2.79, p<.05$)에 따라 생활능력의 하위 영역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은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6세 이상의 아버지들은 45세 이하의 아버지들보다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한 아동의 지적 능력은 가정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에서 구체적인 집단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표 8〉 부모 변인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

변인	구분	아버지 지각의 책임수행 능력		아버지 지각의 지적 능력		어머니 지각의 사회적 능력	
		M(SD)	F	M(SD)	F	M(SD)	F
아버지 연령	35세 이하	2.31(.61)ab	3.01*	2.20(.67)	.846	2.14(.73)	.617
	36~40세	2.18(.49)ab		2.15(.58)		2.01(.54)	
	41~45세	2.10(.45)a		2.12(.62)		2.04(.58)	
	46세 이상	2.49(.50)b		2.39(.42)		2.19(.50)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2.11(.53)	1.32	2.18(.62)	.31	2.03(.52)	.006
	전문대졸	2.22(.52)		2.11(.61)		2.02(.57)	
	대졸이상	2.22(.48)		2.11(.57)		2.04(.62)	
아버지 직업	전문직	2.15(.58)	.132	1.93(.61)	.89	2.14(.83)	.287
	관리직	2.15(.51)		2.08(.63)		2.12(.64)	
	사무직	2.17(.42)		2.06(.52)		1.98(.54)	
	판매서비스직	2.22(.53)		2.24(.57)		2.03(.50)	
	기술생산직 무직 및 기타	2.15(.44) 2.20(.59)		2.14(.50) 2.19(.73)		2.05(.45) 2.02(.66)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2.24(.50)	1.58	2.15(.58)	.62	2.06(.57)	.792
	36~40세	2.10(.51)		2.13(.60)		1.99(.55)	
	41~45세	2.28(.52)		2.24(.60)		2.10(.72)	
	46세 이상	2.22(.51)		1.84(.93)		1.75(.7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27(.52)	1.79	2.19	2.00	2.02(.59)	.099
	전문대졸	2.31(.48)		2.21		2.08(.51)	
	대졸이상	2.10(.51)		1.99		2.04(.66)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19(.55)	.047	2.15	.062	2.12(.59)	4.05*
	취업 모	2.17(.46)		2.13		1.96(.56)	
월 평균 수입 ^{주1)}	1	1.81(.53)	1.716	2.28(.77)	2.79*	2.33(.81)	1.47
	2	2.29(.53)		2.32(.59)		2.14(.58)	
	3	2.13(.51)		2.11(.57)		1.95(.53)	
	4	2.17(.45)		2.01(.56)		1.97(.61)	
	5	2.12(.52)		1.88(.50)		2.02(.57)	

* $p<.05$

주1)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4: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 이상

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 변인과 부모 변인에 따라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생활능력 하위 영역에 대한 아버지 지각과 어머니 지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능력의 동일한 하위 영역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과 어머니의 지각은 서로 중간 정도 이상의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체적인 평가 일치도가 높으며 특정 행동에 대한 일치도는 훨씬 더 높다고 한 Lyon과 Plomin(198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교사와의 지각을 살펴본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 하위 영역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관인 .6~.7정도라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의 상관인 다소 높은 것은 설문지 작성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최근 아동의 양육에 있어 아버지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과 어머니의 지각이 유사하다는 것은 그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해 부모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아동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능력과 개성에 대해 부모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실제 생활과 교육에 적용하여 강점은 살려주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

버지의 경우에는 여아보다 남아의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든 아동보다 어린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한 반면, 미술적 능력에서는 어린 아동보다 더 나이든 아동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책임수행 능력과 지적능력, 그리고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어린 아동보다 나이든 아동의 미술적 능력을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술적 능력에서는 남아보다 여아를 높이 평가한 반면, 지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에서는 남아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Park(1981)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노현미(1998)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남아보다 여아의 예술적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들이 여아의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을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지 않는 것은 최근 특기적성 교육에서 부모들이 성유형화된 행동을 탈피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아에게는 미술이나 음악에 관련된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신체 운동에 관련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미술, 음악, 신체 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책임수행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여아보다 남아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부모들이 여아보다 남아의 인성적·인지적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Park, 1981).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들의 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활능력 하위 영역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집중적이고 외형적이며 언어적 표현이 증가하는데 비해 활동성과 활기는 적어진다고 한 Grawe(1977)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들은 아동의 능력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Park(1981)의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노현미(198)의 연구 결과와는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적인 능력은 증가하지만 부모의 기대 또한 높아지므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들이 나이가 든 아동보다 어린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을 더 높이 지각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부모 변인으로서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수입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지각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책임수행 능력에 차이가 있었으며 월평균 수입에 따라 지적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지각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병림(1987)의 연구와 어머니의 연령,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박세정(1999)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연구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한 이해영(1985)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Jiano와 Jing(1986)의 연구와 아동이 지각한 생활능력과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 평균 수입과의 상관이 낮다고 한 Lee 외(2003)의 연구와는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전업 주부인 어머니들이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한 결과는 아동들의 생활능력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한 노현미(1998)와 박세정(1998)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한 최경순(1994)의 연구와도 불일치한다. 그러나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성 및 적응성이 부족하다는 김숙경(1988)의 연구와 어머니의 취업이 여아의 사회성과 남아의 활동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김재근, 1986)와는 다소 유사하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아동들이 비취업모의 아동들보다 사회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김경숙, 1995)들이 나오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포함하여 부모 변인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일관적인 정보를 위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지각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으며 그 지각을 바탕으로 아동의 능력이나 흥미를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각만을 연구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그들의 기대나 주관의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교사의 평가라든가 또래의 평가, 제 3자의 평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변인이나 부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생활이나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아동의 생활능력, 부모의 지각, 성별, 연령

참 고 문 헌

- 구순완 (1991). 인성과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95).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성격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정옥분 (199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49-163.
- 김숙경 (1988).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근 (1986). 맞벌이 가정과 홀벌이 가정 아동의 제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 연구: 맞벌이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심 (1995). 어머니의 우울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 (1993).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 흥미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법실 (1987).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인, 이병림 (1981). 학령기를 맞는 어린이의 생활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6), 57-71.

- 박성희 (1987).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8(1), 65-82.
- 박세정 (1999).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정, 박인진, 최영희 (2001).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의 아동 생활능력에 대한 설명력. *대한가정학회지*, 39(4), 19-33.
- 박인진 (1998). 아동기 부모-자녀의 결합형태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2), 107-131.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림 (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중강 (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1985).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의 양육태도 변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 (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8(1), 163-175.
- 최경순 (1994).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 논문집, 38(1), 263-291.
- 최정미 (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3(3), 205-216.
- 한성희 (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과 역할수용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i, F (1973). Dimensions of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88, 305-328.
- Bondy, AS, Noreross, JC, Constantion, R (1982). Preschool teacher's estimates of children's abilities and sources of bias. *Child Care Quarterly*, 11, 312-320.
- Bakeman, R, Brown, JU (1980). Early interaction: Consequences for social and mental development a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51, 437-447.
- Cohen-Kettenis, PT, Owen, A, Kaijser, VG, Bradley, SJ, Zucker, KJ (200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with Gender Identity Disorder: A Cross-National, Cross-Clinic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1), 41-53.
- Driessent, G (2003).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rearing Factors, and Cognitive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2-3), 323-339.
- Epkins, CC (1998). Mother- and Father-Rated Competence, Child-Perceived Competence, and Cognitive Distortions: Unique Relations With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42-451.
- Garner, PW, Jones, DC, Miner, J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2), 622-637.
- Gesten, EL (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775-786.
- Jiano, S,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 Lee, J, Super, CM, Harkness, S (2003).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in Korean children: Age, sex, and home influenc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33-147.
- Lyon, ME, Polmin, R (1981). The measurement of temperament using parental rating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47-53.
- MacDonald, K, Parke, R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cDowell, DJ, Parke, RD, Wang, SJ (2003).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dvice-Giving Style and Content: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9(1), 55-76.
- O'Malley, J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1), 29-44.
- Park, CS (1981).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competencies.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Sophian, C (1997). Beyond competence: The significance of performance for conceptu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2, 281-303.
- White, B, Watts, J (1973). Experience and environ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2005. 09. 12 접수; 2005. 12. 08 채택)